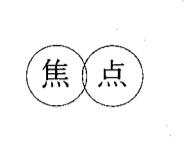




# 漁港施工에 進一步

## 用役費 적정화 早期 발주實現

엄밀하게 말한다면  
공기 단축과 견실시공  
은 매우 이용 배반적  
인 측면이 많다. 그 바  
로 이 이용 배반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어항공사는  
일반 건설공사와 성  
격이 매우 판이한 바다를 상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도로공사나 아파  
트 건설공사를 한 때엔 우리나라  
대명사처럼 따라 건설공사의  
대명사처럼 따라



라다니는 이론바  
철두야(不撤晝夜) 공  
사가 가능하다. 불을  
밝혀 놓고 공사를 진  
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원천적으로 이제 불  
가능하다. 밀물과 썰  
물을 교차되고, 파도가 일렁거  
리는 바다에서 불철주야 애통  
작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언보다 경쟁적인 어

려움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위  
치가 태풍진로권에 있기 때문  
에 이로 인하여 어항공사를 가  
능한 피해야 하는 태풍기가 받  
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단체에 있는 것은 매우 반

고, 활발히 진행되어 마무리

되거나 어항공사는  
여전히 진행되는 다소

상반된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는

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매

우어렵긴 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증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에 대한 협력방법을 마련해

야. 예전에는 주제로 부실방지

를 위해선 불법하도급업

제를 영업정지 4개월, 과

시킬 것을 정확히 시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품질 적용

된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항구에

항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

해온 바와 같이 어항공사를 연

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보하라

면 아마도 기업할 사람은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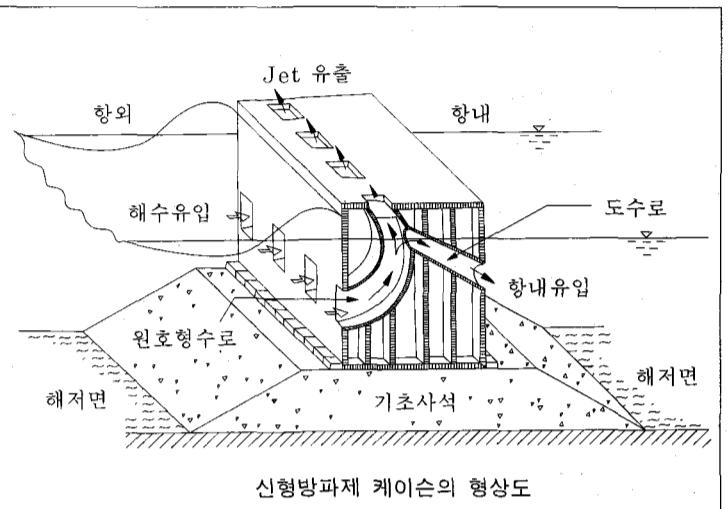
# 새 構造형식 防波堤 개발

제에 비하여 월파 및 반자래식 케이슨형 빙과 사가 적고, 방파제 외곽의 신선한 해수가 항만내로 훤히 유입됨으로써 수질환경보전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사로운 구조형식의 방파제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 해양공학연구부의 이달수 박사팀이 과학기술처 출연연구사업인 「항만수질 개선을 위한 방파시설의 개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이 신형방파제는 방파제 구조물 앞부분에 원호형태의 수위변화 증폭수로를 내장하고 이 증폭수로와 구조물 후면 사이에 파이프 수로를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참조) 재래식 방파제는 주로 과도를 막는데 충돌이 맞

越波·반사  
海水  
작고  
유입

해양연구소 이달수 박사팀 凱歌



## 시현발파제 케이스의 혁신도

항내에 물이 고이게 되어 질소, 인 등의 육기 물이 유입될 때에 이를 통해 하기 위한 산소부족을 초래하여 항내의 물이 썩음으로써 악취의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이 국에서도 산소를 많이 포함한 신선한 해수를 항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대목적 방파제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며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개발된 방파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파제로서, 이 방파제가 실용화될 경우 기존의 단순목적 방파제에서 환경보전개념과 분수현상의 수립한 미관으로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을 나목적 방파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방파제에 파도가 부딪칠 때 원호형 수로를 통해 외해쪽으로 나가는 물은 방파제를 넘어서는 물을 방파제 상공에서 밤 아치므로 항내로 넘어 가는 물의 양을 감소시켜 항내에 물이 고이게 되어 질소, 인 등의 육기 물이 유입될 때에 이를 통해 하기 위한 산소부족을 초래하여 항내의 물이 썩음으로써 악취의 원인이 되어 왔다.

여신선한 해수가 항내에 들어오게 된다. 한편 원호형 수로내에서는 해상상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주기적인 파랑에서 수위의 공진振이 발생하여 도수를 양끝 사이의 수위차를 가시킴으로 도수로를 하는 유량이 대폭 증가되어 방파제 후면에 약 10m의 수위상승이 일어난다. 따라서 방파제 후면이 부터 매우 미세한 흙을 발생하여 항입구를 통과해 훌러나가므로 항내 수가 자연적으로 산소 많이 포함된 신선한 해로 교체되게 된다. 이와 함께 방파제 선박의 흘수선 이하로의 도수로 유출구를 소화하고 있는 건설기

기술자 現場 배치 緩和  
인력난·工費 상승 고려

금상(1점): 수산청장 상  
 패 및 삼금(1백만원) 은상(2점): 수협회장상  
 장 및 한국어선향회상  
 상패 및 삼금(각 50만원) 동상(2점): 한국원양어  
 협회장 및 한국수산회장  
 상상(5점): 한국어항협  
 회장 상장 및 삼금(각 10만  
 원) 회장 상장 및 삼금(각 10만  
 원) 회장 상장 및 삼금(각 10만  
 원)

■ 기타사항

- 본 공모전 입상 및 입선  
 작품 주최측(한국어항협  
 회)에 귀속하며 이를 전시  
 동아리를 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  
 됨은 물론 회원은 제명 조  
 치되며 비회원은 입회자격  
 이 10년간 유보됨에 유의  
 하시기 바람
- 출품표에 활동장소, 화  
 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를 꼭히 명기

우 인력단으로 기술이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  
 를 고려, 한 사람의  
 설기술자를 가까운 거  
 떠 있는 2개 협장에  
 복배치할 수 있는 기준  
 건설부에 따르면 근  
 들어 인건비 자재비 등  
 사비 상승으로 건설업  
 공사 규모별 기술  
 배치 기준을 조정할 필  
 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  
 △ 2백억원 이상 공사에  
 기술사 △ 50억원 이상  
 백억원미만 기술사 또  
 △ 10억원 이상  
 사 1급 △ 억원미만 기사 1급 △  
 억원미만 기사 2급 등이  
 돼 있는 기준을 △ 2백  
 원이상은 기술사 또는  
 무경력 15년이상 기사  
 급 △ 20억원이상 기사  
 2백 △ 20

할 수 있는 기준을 공시하고, 5억 원 미만으로 상황 조정하고 단순히 행정 구역 단위로 규정화된 것도 현장간 거리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 표준품세법개정 실查제출시달

건설부는 최근 내년도에 적용할 표준품세 개정 대상으로 프린트채팅공법 등 모두 83개 항목 및 실사기관에 오는 9월 말까지 실사 결과를 제출도록 시달렸다.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건설부가 추진하는 표준 품셈 개정항목들을 토목 (건설기계포함)이 49개 등이다. (신설 21개, 보완 28개, 개정 7개, 보완 5개, 기계 설비 22개, 신설 6개, 보완 16개)

## 법아의 끊임없는 추구는

범아의 끊임없는 추구는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올바른 관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척자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항공사진	측량
GPS정밀	측량
해양	측량
원격	탐사
수치	지도
	제작
	구축
GIS	

